



‘한의학 경락이론의 과학적 정립 연구’로 국내외적으로 널리 알려진 소광섭 서울대 나노프리모연구센터장(서울대 물리학과 명예교수·사진)이 ‘2012전국한 의사대회’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성금을 쾌척했다.

소광섭 교수는 “이번 전국한 의사대회를 통해 전국에 있는 한 의사들이 한마음 한 뜻으로 뭉쳐 한 의학의 큰 발전이 이뤄지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”고 밝혔다.

또한 소 교수는 “한 의학의 발전은 현대화를 통해서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, 이를 통해 한 의학은 세계적인 치료의학으로 도약할 수 있다”고 말했다.

소 교수는 한 의학 침술치료의 기반인 경락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최근 한국한 의학연구원에서 열린 ‘전통의학의 최신 동향’주제의 국제심포지엄에서 ‘뇌와 척수에서의 프리모 시스템(경락) 관찰 법에 관한 최근 연구 동향’을 발표, 암 전이의 중요 통로로 경락의 실체를 밝혀내 2011년 과학기술계 10대 뉴스로 선정되는 등 큰 관심을 모았다.

소 교수는 “생체에서 경락만 염색하는 기법을 개발함으로써 경락 연구의 대전환기를 맞았으며, 이 염색법과 극미세 형광입자를 이용해 보이지 않는 경락을 비교적 쉽게 찾을 수 있었고, 경락이 암의 중요한 전이 경로가 된다는 사실을 영상으로 관찰했다”고 밝혔다.

한편 소광섭 교수의 경락이론 정립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대한한 의사협회는 지난해 ‘서울대학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나노프리모연구센터’와 업무협약을 맺고, 한 의학의 과학적 기전을 규명하기 위한 프리모시스템 연구를 지원키로 한 바 있다.

소 교수가 앞으로 경락과 경혈의 작용기전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게 되면, 한 의학이 과학적 근거에 의한 의학임이 명확하게 확인되는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.